

# 한복이 가진 담담한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 7월 23일까지 한복문화창작소서 이진희 디자이너 '극중 한복'展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5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복문화창작소서 이진희 디자이너의 '극중 한복'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생명의 원형이 춤추는 옷'이라는 주제로 드라마 및 영화에서 선보인 한복과 함께 다양한 영상·설치 미디어 작품이 전시된다.

이진희 디자이너는 평소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연극과 무용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그녀만의 실험적이고 감각적인 예술혼을 더한 한복을 통해 대중적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영화 '안시성'으로 지난 2020년 '대종상 영화제'의 의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르미 그린 달빛', '성균관 스캔들' 등 전주에서 촬영한 드라마, 그리고 '간신', '안시성' 등 주요 사극 영화 속 한복 실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이진희 디자이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허구의 극과 캐릭터를 위한 옷이 아니라 동시대의 현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옷을 짓기 위해 작업에 임했다"며 "본래 한복이 가진 담담한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놀이팀(063-281-1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이진희 디자이너



익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에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 공연을 선보인다.

# 가정의 달 명품 공연 '선물'

익산시립합창단, 제85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 개최

익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에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시립합창단 신임 예술감독 취임과 함께 개최되는 정기 연주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보에 나선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의 노기환 지휘자 취임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휘자와 합창단이 처음으로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봄과 관련한 곡들을 준비했다.

특히 더욱 풍성한 공연을 위해 1부와 2부에서는 광양시립합창단과 익산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 줄 예정이다.

독일의 작곡가 칼 오프(Carl Orff)의 카르미나 부라나(Carina Burana) 중에서 '세상을 지배

는 운명의 여신'과 하이든의 사계 중 '봄' 등 격조 높은 곡들이 연주된다.

3부 한국곡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의 무대는 소프라노 양귀비, 테너 황병남, 바리톤 김형기의 솔로곡과 익산시립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익숙한 선율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은 웅장함을 더하기 위해 케록스 타악기 앙상블 연주와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뉴오버뮤지크 오케스트라 반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립합창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바쁜 일상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유선(063-859-3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창극 '산전수전 토별가' 무대 오른다

국립민속국악원, 19~21일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 통해 해학·위로 선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계묘년 흑토끼 해를 맞아 국악원 대표작품 창극 '산전수전 토별가'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 올린다.

이번 창극은 전통적인 판소리 수궁가의 잘 짜진 소리 위에 인간 사회의 군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 동시대의 관객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존재했던 팔난(八難)의 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간 토끼와 별주부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해학과 위로를 선사한다.

국악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연출, 각색의 수궁가가 공연되었지만, 이번 '산전수전 토별가'는 기존과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 조광화

연출은 '수궁가'를 창극으로 개작하며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전했다.

작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 왕기석과 명고 조용안이 작창과 음악감독으로 함께해 작품에 힘을 실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21일 까지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3시에 각 150분간 예원당에서 선보이며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namwon.gugak.go.kr) 및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 가능(문의 063-620-2329)하다.

한편 왕기석 국립국악원장은 "무릇 음악이라는 것은 시대성을 담아내야 하는데, 창극 '산전수전 토별가'를 통해 시대를 담은 창극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니 모처럼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 많이 오셔서 우리 삶의 재미와 희망을 찾



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춘향국악대전' 참가자 접수·청중평가단 모집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주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50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의 경연 참가자 접수와 청중평가단들을 모집한다.

대전은 5개 분야 1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일반부, 학생부) △기악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 부문이다.

참가자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우편, 방문, e-mail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춘향제

홈페이지(<http://www.chunhyang.org/>)나 남원시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에서 내려받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전위원회 국악대전운영팀(063-620-54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대중과 함께하는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부 종합 결선 및 판소리 결선 청중평가단 20명도 모집,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8회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 개최

사)진안예찬 진안지부(회장 유종구)는 오는 20일 마이튼테마공원 일대에서 제8회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

진안군에 재학 중인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진안예찬'이나 대회 당일 제시하는 주제 중 선택해 시, 수필 중 자신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명(상금 30만원), 금상 2명(상금 20만원), 은상 2명(상금 15만원), 동상 3명

(10만원), 장려상 4명(5만원), 입선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도자기, 서각, 가족공예 등 문화체험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해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예찬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jinan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